

-(으)ㄴ 텐데

~일 텐데 (추측을 배경으로)

추측을 배경으로 제시한 뒤 문장을 전환하거나 말끝을 흐립니다. 같은 테를 쓰는 표현으로 -(으)ㄴ 테니까 가 있지만,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ㄴ 텐데	바쁘다 → 바쁠 텐데
받침으로 끝남	-을 텐데	좋다 → 좋을 텐데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 텐데
반사실(과거 가정)	-았/었을 텐데	종았을 텐데요
말끝 흐리기	-(으)ㄴ 텐데요...	걱정될 텐데요...
부탁으로 이어짐	-(으)ㄴ 테니까	바쁘실 테니까 나중에 봅시다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일반 규칙을 따르며 ㄴ 어간은 짧은 형태를 씁니다. 만들다 → 만들 텐데.

다음 내용의 배경으로 추측을 제시합니다. -는데가 사실을 배경으로 제시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: 바쁘실 텐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

말끝을 흐린 채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으며, 말하지 않은 뒷부분은 걱정입니다: 아직 안 왔는데 무슨 일이 있을 텐데요...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용법은 흔히 쓰이며 다른 말로 옮기기 어렵습니다.

과거를 안에 넣으면 실제와 반대되는 일에 대한 아쉬움이 됩니다: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—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바쁘실 텐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
- 2 길이 막힐 텐데 일찍 출발하세요.
- 3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좀 드세요.
- 4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.
- 5 직접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괜찮으시겠어요?
- 6 지금쯤 도착했을 텐데 연락이 없네요.

■ 비교

-(으)ㄴ 테니까
같은 테를 바탕으로 합니다. 테니까는 이유를 제시하며 부탁으로 이어지고, 텐데는 배경을 제시하며 흔히 걱정이나 대조로 이어집니다.
바쁘실 테니까 나중에 봅시다. (바쁘실 테니 나중에 보자) / 바쁘실 텐데 괜찮으세요? (바쁘실 것 같은데 괜찮은지)

-(으)ㄴ/는데
-는데는 알고 있는 사실을, -(으)ㄴ 텐데는 추측한 내용을 배경으로 제시합니다. 텐데는 안다고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부드럽습니다.
바쁘신데 감사합니다. (바쁘신 것을 알고) /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. (바쁘실 것 같은데)

-았/었을 텐데
과거형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냅니다. -았/었으면과 자연스럽게 짝을 이룹니다.
좋을 텐데요. (좋을 것이다) / 좋았을 텐데요. (좋았을 것이다)

■ 주의

- ✗ 직접 만들을 텐데 시간이 걸려요.
- 직접 만들 텐데 시간이 걸려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ㄴ이 있으므로 더 붙이지 않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테니까도 마찬가지입니다.
- ✗ 미리 알았으면 좋을 텐데요.
-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.
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아쉬움은 과거를 안에 넣어 -았/었을 텐데로 씁니다.
- ✗ 바쁘실 텐데 나중에 봅시다.
- 바쁘실 테니까 나중에 봅시다.
제안을 하려면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가 필요합니다. 텐데는 배경을, 테니까는 근거를 제시합니다.